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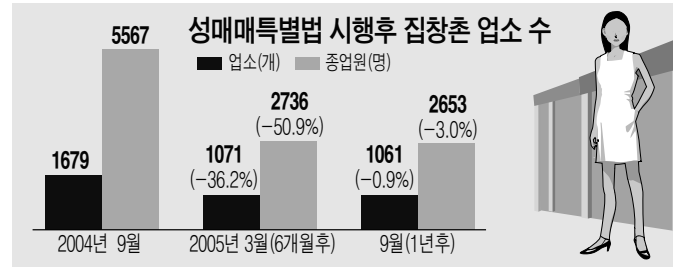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단속의 직격탄을 맞아 사양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유사성행위 등 음성적인 성매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집창촌 모습. 허영환기자 (블로그)younghwan.chosun.com

‘숨어서 불켜는 흥등’ 더 늘었다

오는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는다. 이 법률은 처음엔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9·23 혁명’으로까지 불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유사성행위나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매매는 갈수록 변장하고 있다. 집창촌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의 명암을 살펴본다.



유사 성행위업체 기승 인터넷 성매매도 늘어

◆신종 성매매 기승
“예약 안 하셨으면 1시간30분 정도 기다려셔야 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고시촌 소재 A스프츠마사지 업소, 커튼을 찢고 들어가니 1평 남짓한 쪽방에 침대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곳은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 1시간에 6만원짜리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 고시촌에 1~2개 있던 업소는 1년 새에 10여개로 늘어났다. 학교나 주택가 주변까지 퍼져 있다. 여종업원은 “고시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주말에 1~2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최태수 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업소 초입부터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철저히 감시하는 데다, 성을 산 남성에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단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 1:1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온라인 성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 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572명 중 82%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했지만, ‘z’나 ‘조건’ 등 금칙어를 교묘하게 바꾼 카페들이 수심가에 이른다.

“변태 노래방만 키웠다” 유흥업소·집창촌 반발

◆반발하는 기존 성매매 업소
지난달 30일 울산시 남구 달동문화공원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수천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불법 변태영업은 일삼는 노래방을 규탄한다”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창원, 대구, 수원,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돌아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는 술 판매와 여성전대 부 고용이 가능한 비싼 세금을 내는데, 노래방은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2차를 하는데도 단속이 거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김세중 사무총장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유흥업소 40%가 휴·폐업했다”고 말했다.

집창촌 업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집창촌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측은 지난 8월 초 국회의원 29명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전국한터여성종사자연합’도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한터전국연합 강현준 사무국장은 “집창촌이 단속대상이 되면서 안마시술사나 이발사, 휴게텔 등 반사이익을 노린다”며 “성매매특별법 이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장기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6개월간 반짝 단속 이후엔 제자리 걸음

◆경찰의 ‘반짝’ 단속
경찰청은 20일 성매매 업소는 1679곳에서 1061개로, 여종업원 수는 5567명에서 265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그간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수치만으로 보면 상당한 성과다. 하지만 올 3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 만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가 1071개로, 여종업원 수가 2736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6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는 10곳(0.9%), 여종업원은 83명(3.0%)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시행 초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에는 단속을 강화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단속도 약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 집창촌 업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안마시술사 시장장업인들이 경찰관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폭은 작지만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의 실패가 재현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지연 변호사는 “성매매 문제가 불거지면 반짝 단속하다가 법 집행의지가 약해지면 유명무실해지는 이전의 실패사례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며 “음성화된 성매매 시장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성문화를 바꾸는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희기자 (블로그)rhpark.chosun.com
안준호기자 (블로그)libai.chosun.com

서울대 신입생 특목고 출신이 7%

2005년 대입에서 서울시내 8개 특목고(과학고·외고) 학생 중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총 228명이었다. 이는 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7.0%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합격생을 낸 학교는 대원외고로 60명(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이었으며 이어 서울과학고(36명) 한영외고(34명) 한성과학고(27명) 대원외고(27명) 명덕외고(26명) 서울외고(10명) 이화외고(8명)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내 특목고 대학 진학률’ 자료에 따르면 대원외고 학생은 2005년 입

시에서 연세대에 101명, 고려대에 123명이 합격했다. 해외유학자는 5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11.7%에 해당했다. 대원외고는 연세대 110명, 고려대 102명, 포항공대 4명, 카이스트 3명, 해외유학 27명이었으며, 서울외고는 연세대 44명, 고려대 55명, 포항공대 7명, 해외유학 8명이었다.

이화외고는 연세대 42명, 고려대 33명, 이화여대 64명이었고, 명덕외고는 연세대 79명, 고려대 57명 외에 해외유학생이 13명이었다. 한영외고는 연세대 80명, 고려대 82명이었다. 서울과학고의 경우 연세대 13명, 카이스트 36명, 포항공대 4명의 합격자를 냈고 한성과학고는 연세대

37명, 카이스트 53명, 포항공대 10명이었다.

대학진학률로 볼 때 한영외고는 졸업생의 70% 이상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거나 유학을 떠났으며, 대원외고는 졸업생 절반 이상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거나 해외대학에 진학했다.

특목고 졸업생들의 해외유학도 매년 증가했다. 대원외고의 경우 2004년 28명에서 2005년 52명, 대원외고는 2004년 11명에서 2005년 27명, 한영외고 2004년 5명에서 2005년 20명으로 늘었다.

안석배기자 (블로그)sbahn.chosun.com
대학별 진학 현황표 chosun.com

“삼성서 받은돈은 30억” 이회성씨 말 바뀌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삼성측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이회성(李會成)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3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회성씨는 20일 “지난 16일 검찰에 나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1997년 9~11월 3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진술 번복은 삼성측 인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령(배임)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씨와 삼성 간의 거래금액이 ‘30억원’일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강군기자 (블로그)nukus.chosun.com

한국경제 ‘별’들 梨大강단에

여성금융관리자 과정

국내 경제학의 ‘드림팀’이 이화여대 강단에 선다. 이화여대 경영대학이 이달 말 개설하는 ‘여성 금융관리자 과정’이라는 이색 강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산·관·학계 인사가 망라된 ‘드림팀’은 학계의 정운찬 서울대 총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장표 서강대 교수와 금융계의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황영기 우리은행장, 김승유 하나지주회사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조왕하 대한투자증권 사장, 강전수 서울증권 회장, 민유성 리안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등이다.

재경부의 김석동 차관보, 금융정책국 일부 간부, 금감원 전 총괄 부원장 등 경제부처의 전

·한지 고위관료도 참여한다. 서울경경대학장은 “젊은 여성 금융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블로그)helljojin.chosun.com

“洪씨 로비 받은 부장검사 중징계”

대검찰청 권고... 검찰비리 상반기 45명 징계

대검찰청 검찰위원회는 20일 브로커 홍도(62)씨의 ‘검찰·경찰·언론 상대 금품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서울고검의 김도 부장검사를 중징계 하도록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이 포함된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검찰직원에

명 늘어난 45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검사는 6명으로, 면직 1명, 경고 4명, 주의 1명 등이었다. 이들의 불복과 사실이 드러난 정모 검사는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전별금을 받은 검사 1명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 총일에 경찰대 골프모임에 참석했던 검사는 대검 검찰부장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원성기자 (블로그)capedm.chosun.com
황대진기자 (블로그)djhwang.chosun.com

열독률 1위 · 구독률 1위의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추석 합본호

조선일보사 | 9월 19~26일 | 1872호 | 값 3000원 | weekly.chosun.com

세계 명견 150종 대형 포스터와 애견 키우기 올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DOG BREEDS OF THE WORLD

인터넷(weekly.chosun.com)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를 사로잡다

- ▶ 50년 개사랑 이견희 회장이 세계진출 일등공신
- ▶ 청결함, 영특함에 외국인도 반했다
- ▶ 해외수출 열쇠는 혈통표준화

뉴올리언스 취재기

죽음의 도시 잠입, 작전명은 ‘하면 된다!’

코지 네루-간디家, 4대 후계자 ‘리홀 띄우기’ 시작됐다

노구(老龜)의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 연설 “광주시민과 전라도민께 무한한 감사”

왕·대통령만 인터뷰, 영문월간지 디플로머시 임덕규 회장

자연다큐 작가 신동영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내 남편은 국회의원 ④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의 부인 김소희씨

특집 I 2020년 달 식민지 된다!

특집 II 무협소설이 뜬다

연재전문출판사를 찾아서 ② 한국문화 알리기의 선봉장 ‘대원사’

말문 닫힌 영어는 NO! 토익시대 끝나나